

## 인터뷰

유영호

우선 작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교 수업에서 발표 안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질문을 읽어보고 사실 어느 질문들은 답변이 쉽지 않거나 아님 무척 장황해질 것 같아서 조금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해 볼게요.

1. 선생님의 작품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작업에 대해 얘기한다면?

- 우선은 즐겨보라고 해야겠네요. 제 작업의 특성 상 직접 겪어 보고 그 다음에 조금씩, 언젠가 불현듯 정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관계로 너무 많은 고민 없이 작품에 참여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작품의 경우에는 떨어져서 감상을 해야 하는 작품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작품이 관람자가 간격을 두고 떨어져서 감상을 필요로 하는 작품들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2. 선생님의 작업에 대한 시발점 혹은 계기가 된 것이 있나요?

- 오래된 작업들에서 저는 오브제로서의 작품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 후 독일에 유학을 가게 되었고 유학 3년 만에 처음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제가 살아 왔던 한국이라는 나라와 장소, 문화를 다시 보게 되더군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리, 넘쳐나는 물질들... 상품과 광고, 간판과 쓰레기로 범람하는 거리... 그리고 독특한 냄새까지, 그동안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모든 것이, 예를 들어 과거의 역사와 현대의 문명들이 혼재되어 한 장소에 머물러 있고, 많은 것들이 다 새것들이며(6.25 전쟁 후 다시 만들어졌죠) 어떤 규율이나 미적 취향이 보이질 않는 시각적 환경들이 마구 섞여있는 느낌이랄까... 아무튼 카오스처럼 느껴졌지요. 그리고 이것은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게 되는 인상 - 에너제틱, 역동성으로 보여 지는 무엇입니다. 그런 묘한 에너지, 그리고 특히 길거리의 노점상 아주머니들 보고 그들의 삶에 대한 처절함, 혹은 적극성, 다시 말해 삶에 대한 솔직함이랄까... 열심히 하루하루를 생존을 위해 사는 모습들을 보고 제 자신과 제 미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미술가란 어떤 존재이어야 하며 내가 만드는 미술 작품이란 무슨 가치가 있는가? 저들과 내가 사는 하루는 다른 것인가? 세상의 수많은 생산물들과 내가 생산하고 있는 미술품의 차이란 무엇인가? 가치가 다르다면 무슨 가치의 차이가 있는가?...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삶에 대한 의미를 처음으로 솔직하게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Shop - How are...'라는 작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작품과 미술, 미술가의 가치와 위치에 대한 질문을 갖고 만든 첫 작품입니다. 그 후 지금까지 오게 되었구요...

3.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미술가와 미술작품이란?

-사실 이 질문은 참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저는 작업은 작가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울이라 생각하구요. 지금의 미술 환경은 작가에게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명작가는 시장성

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미술제도가, 그리고 자본 시스템이 그래요. 그래서 작가들도 시장에 민감해지지 않을 수 없고 때론 디자이너가 되기도 하고 때론 비즈니스맨이 되어야 하지요. 이런 상황이 저에겐 사실 불편합니다. 얼마 전 데미안 허스트의 다이아몬드 해골이 천억 원에 팔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볼 땐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허상들이라 생각합니다. 그 돈의 규모에 놀라고 마음 한편에서는 부럽기도 하지요^^ 아! 나도 저런 미술사에 남는 작가가 되고 유명인이 되며, 또 돈도 벌면 좋겠다... 이런 거지요...^^ 작가의 행동과 생각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물들이 어떤 평가를 받겠지만 그저 상품 가치로 평가받는 것에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술을 평가하는 보편적인 비평 방식들이 그래왔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구요... 이점이 제가 프라이스숍을 소중히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런 모든 현상들, 작품을 둘러싼 우리의 상념들을 프라이스숍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맞는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저 해보는 거지요...

어떤 작가가 그러더군요. '미술의 목적은 맹목적성이다.' 라구요. 저는 이 말에 어느 한편은 동의를 하나 어느 한편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야 말로 미술이 어려워지고, 또 어떤 이해와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라 선언한 서구 모던 부르주아지 미술의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미술 논리의 모든 핵심이지요...^^ 저는 프롤레타리아 미술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미술을 어떤 권력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모든 장치와 생각, 이념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조직에도.. 그리고 조금이라도 권력을 가진 큐레이터나 작가들과의 만남을 즐겨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무명 아웃사이드 작가로 남게 되는 거지요... 현재 그렇게 되었네요...^^ 하지만 전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니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요..^^ 충분히 감수해야겠지요...

제 이야기가 오해를 살 여지가 많은데요... 다만 다양한 생각들이 각자의 자유만큼 살아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작가도 존재해 줘야 하는 거겠지요. 앞으로의 미술과 미술가는 정말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각적 환경이라는 것은 너무도 방대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작가는 기존의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일을 창조적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네요... 전 방글라데시의 빈민을 위한 그라민 은행을 만든 유누스라는 분을 작가라 생각합니다. 그가 만든 은행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빈민들이 혜택을 받고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정직하게 일하는 한국의 기업가들도 그렇구요... 미술가가 세상을 먹여 살릴 수단을 갖기는 어렵겠지만 미술가로 인해 세상에 전파되고 상상력을 통해 세상이 다르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작가입니다.

4. 선생님께선 주로 작업과 관련해 누구랑 이야기 하나요?

-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과의 교류가 점점 없어지네요... 하지만 절친한 독일 친구, 건축가, 디자이너, 문화 환경 기획가와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작가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고립감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일 텐데요... 이점이 힘든 지점이네요... 제가 스스로 만든 함정 같은 것이기도 하구요. 다만 작가는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와 만남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소통의 폭을 넓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그룹, 아바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5. 저에게 혹은 작업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흐~~□□□□ ^^ 저보다 작업을 당연히 열심히 하실꺼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믿으시고 꾸준히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업은 누가 시켜서 과제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지요... 그렇지만 자신의 생각을 하나씩 실현해 가면서 느끼는 희열은 누구나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즐길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답변이 짧아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작업하는 현장에서 뵙기를 기대하며.....